

Essay 정이 깊고 충성스런 삼살개

낙동강가에 자리한 경북 선산군에는 삼백 년이나 된 의구총이라는 돌무덤이 있다. 비석엔 의로운 개라는 뜻의 '의구'라는 글자만이 남아 있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선산 부사였던 안홍창이 1665년에 네 폭짜리 그림과 함께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성원이라는 선비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파정이 있는 강변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오던 삼살개가 주인 곁을 지키다 때마침 불이 나자 주인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강물에 몸을 적셔 불을 끄다가 결국 주인의 목숨만 살리고 개는 지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눈이 털로 덮여 있어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삼살개는 느릿하고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충성스럽고 정이 깊은 동물이다.

삼살개는 50센티미터쯤 되는 중간 크기의 개로서 청삼살개와 황삼살개의 두 종류가 있다. 청삼살개는 검은색의 긴 털에 옅은 회색 털이 섞여 있으며 달빛을 받으면 푸르스름한 빛을 발해 청삼살개라 부른다. 황삼살개는 청삼살개에 비해 몸집이 크며 누런 털에 흰색과 검은색의 털이 배합돼 있다. 삼살개의 어원도 재미있다. '삼'은 '없앤다 또는 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살'

은 '귀신, 액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살개는 귀신을 쫓는 개를 뜻한다.

여러가지 구전이나 민화, 풍속화, 문헌을 통해 보건대 삼살개는 우리 민족과 함께 생활해 온 한국 고유의 토박이 개이다. 고대 소설 춘향전에도 '계화 밑에 삼살개가 짖는구나'라는 대목이 나오며, 경상북도 경주지방에 전해 내려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 시대 왕궁에서만 길러지던 삼살개가 통일신라 왕조가 멸망함에 따라 민가로 흘러 나와 남쪽 지방에 널리 퍼졌다고 한다. 또한 김유신 장군은 삼살개의 용맹성을 높이 사 전쟁터에 나갈 때 삼살개를 앞세웠다는 기록도 전한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흔하던 삼살개는 일제침략과 더불어 끔찍한 수난을 겪게 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방한복과 방한화 같은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개가죽까지 공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 해에 삼십여 만 마리가 도살 당해 해방될 즈음엔 희귀종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가 삼살개의 보존에 뜻을 둔 한 수학 교수와 그의 동료에 의해 순수한 토종 삼살개의 수집과 연구가 진행되어 결국 삼살개는 1993년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었다. 작년 가을에는 삼살개를 2002년 월드컵 대회외 마스코트로 삼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기도 했는데, 삼살개가 우리의 토종개로 그 가치와 우수성이 알려진 만큼 품종 보존에도 계속 힘써야 할 것이다. ♪



〈좋은 생각 3월호에서〉